

지난번의 말씀은, 골육(骨肉)과 친척(親戚)을 위한 바울의 심정을 상고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족(親族)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골육과 친척이 구원(救援)받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만, 현실(現實)은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골육친척(骨肉親戚)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울고 울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정반대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主權者)이신 하나님을 발견(發見)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主權),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권’이란 lordship(주인되심), sovereign power(주권자의 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권리(權利)를 말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주권이 있습니다. 백성도 백성의 주권이 있습니다. 모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할 권위와 환경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나를 주권을 주셨습니다. 자율권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을 다루시고, 세계를 경영하는 능력이 있으신 주권자이며, 전능자시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오늘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矜恤)>이란,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권(主權)만을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그 주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담았습니다.

긍휼은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성품(性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 자비, 긍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Love, mercy, grace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幸福)해 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은혜로 사용하시는 사실은 우리가 놀라워하고 경탄(驚歎)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 1. 주권자이신 하나님 (14-18)

먼저 바울은 성경의 역사를 훑어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실까? Yes and No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알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구약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삭-야곱 등 족장들의 역사를 살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다음 같은 것들입니다.

###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인가요? 그가 훌륭해서 인가요? 잘생겨서 인가요?

그가 큰 민족의 대표자요, 능력있는 지도자여서 그런 것인가요?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NO(아니)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6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띠라, 지혜(智慧)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能)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門閥)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고 합니다.

신명기 26:5에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 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선, A Syrian (KJV) a wandering Aramean(NIV, NASB)

신명기 7:7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고 하십니다.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 이삭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손이 아니다. 오직 이삭에서 난 자라야 하리라.(9장 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3)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적자(適者)였고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9장 13절)고 하십니다. 같은 아들이라도 하나에게 더 사랑이 가는 것도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주권(主權)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자율(自律)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주권을 믿고 인정해드리는 것이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논조는, 사랑과 미움의 문제까지도, 주권의 문제가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롬9:11-13절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게 하사, 리브나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 우리가 우리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를 행할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성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는 만물(萬物)의 주재(主宰)가 되사, 손에 권세(權勢)와 능력(能力)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強)하게 하심이 주(主)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12) 그런데 바울은 한걸음 더 나갑니다.

## 2.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긍휼(矜恤)

바울은 오늘의 말씀속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세상경영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mercy)과 강박하게 하심(harden) (9:15-18절) 읽어봅시다.

14.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不義)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

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구요? 하나님은 <공휼이 여길자를 공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헬라어 원어는 ἐλεέω (eleeō)이며, 이 부분의 구약원전은 출애굽기 33:19절인데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사랑, 인자, 자비로도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17절,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대단한 해석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휼(矜恤)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頑惡)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는 것은 완악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악"의 '頑'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는 의미이며, '惡'은 '악하다', '나쁘다'의 뜻을 가집니다. 두 글자가 합쳐져 '성질이 역세게 고집스럽고 냉혹하거나 사나운 상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부드러움이나 선함이 없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공휼(mercy)을, 바로에게는 강박함(harden)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입니다. 모세는 힘없는 애굽의 식민지 지도자이지만, 바로는 세계최대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공휼과 완악함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셨다고 합니다.(역설적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공휼을 베푸시고, 강한 자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시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질문입니다. 조롱하는 질문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主權)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휼과 강박케 하심을 말하면, 저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主權)대로 한다면, 책임(責任)도 하나님이 지셔야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바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옳은 질문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을 무시(無視)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도 인간에게 선택권과 자율권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주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운명을 마음대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경영하시고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절의 생각입니다. 20. 이 사람아, 네가 누우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인간화(人間化)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식>의 인간화(人間化)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유명한 '토기(吐器)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보다 디테일한 것은, 예레미야 18:1-11)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드는 장인(匠人)을 말합니다. 그 앞에는 온갖 종류의 흙들이 있고 귀한 그릇이나 천한 그릇이나 그 토질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그릇을 만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에 따라 만드는 그의 작업에 토기가 의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않으나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기장이가 그런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이 그릇을 귀히 쓰던 천히 쓰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면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주목(注目)해 보아야 할 것은,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있습니다.

방금읽은 로마서 9:22절의 '**오래참으심으로 관용(寬容)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한 토기장이>의 비유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토기장이가, 그가 만든 마음에 들지 않은 토기를 기다리는 일이 없듯이, 하나님은 단지 토기장이가 아니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인간이 **진노의 그릇**에 담긴 것처럼, 진노를 앞두고, 진노를 더 불러일으키고 있어도, 그는 그들을 오래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시고, **공홀의 그릇**에 담겨져 있으나,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혼내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홀,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바울 혼자만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이 구약의 선지서에서 유래되었음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25-29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 3. 선지자들이 증언(證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공홀 (로마서 9:25-29)

바울은, 두 명의 선지자를 구약성서에서 불러내 호명(呼名)하고 있습니다.

1) 첫째는 호세아입니다. 그는 호세아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는 25, 26절에서, 두 개의 호세아 구절들을 인용(引用)합니다.

먼저, 25절에서 그는 호세아 2:23절을 인용합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2:23절의 "내 백성이 아닌 사람", "사랑하지 않던 백성"이라는 표현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떨어진 북이스라엘, 즉 불순종과 배반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 백성'이라 불리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을 먼저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순히 유대인뿐 아니라 훗날 이방인까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공홀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시하는 구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26절에서, 호세아 1:10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회복을 약속하신 대상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북왕국) 출신이며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배신한 북이스라엘조차도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고 깊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에 목매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올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가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식을 초월하는(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19)

2) 두 번째는 이사야서입니다. (롬 9:27-29)

**“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7-28절은, 이사야10:22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10:21-22절은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29절은 이사야서 1:9절의 인용(引用)입니다.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seed 생존자)를 남겨 두지 아니 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니> 함과 같으니라.”**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을 겪은 뒤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돌아오는 참된 신자(信者),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회복될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主權)과 하나님의 사랑의 조화(調和)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마지막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맺음 :** 오늘도 제 말씀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재미도 없는 말씀이죠? 제 메시지를 성도들이 되셨다는 것이 불행이죠? 말씀만 내리 파니말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더 말씀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다가 눈이 열리고 박수를 치고 감사와 찬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자 하나님, 자의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바른길로 오기를 기다려주시며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시다.

기도합니다.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이신 하나님 ! 그 위엄과 그 성품과 그 긍휼,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소돔과 고모라같은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가운데에서 살게 하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